



## 서울무악RC, '울타리 위성클럽' 창립

회원 영부인 15명으로 구성, '패밀리투게더'에 따른 첫 위성클럽 창립!  
서울무악RC 창립 22주년 기념식도 함께 개최



**서울** 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진) 창립22주년 기념식 및 울타리 위성클럽 창립식이 지난 10월 24일(화) 18시30분 The River 에서 이순동 총재, 정휘재 지구 회원증강위원장 등 내빈과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석진 회장의 개회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된 기념주회는 서울무악 울타리 로타리 위성클럽 창립 경과 보고 후 성태영 초대회장의 인사말씀, 이순동 총재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단체기념을 한 후 만찬을 즐기며 요트를 타고 한강 야경을 감상하였다.

서울무악-울타리 위성클럽은 안종원 7지역대표 영부인인 성태영 회장을 비롯하여 서울무악RC 회원들의 영부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무악로타리클럽과 공동봉사 활동을 비롯하여 자체적인 로타리 활동도 병행하여 펼쳐갈 계획이다.



## 서울무악 울타리 로타리 위성클럽 성태영 회장 취임사 (안종원 7지역대표 영부인)



서울무악  
울타리 로타리  
위성클럽 회장 성태영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창립과 함께 제가 남편손에 이끌려서 로타리 가족이 된지도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나름 푸릇푸릇한 청춘이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경로우대차원으로 새롭게 발족된 울타리 위성클럽의 책임을 맡게 되어 진실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제 개인의 삶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22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크게 발전하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가장 모범적인 로타리의 모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동 총재님이 제시하신 Family Together 라는 Catchphrase는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 로타리의 새로운 봉사의 패러다임을 여는 우리 모두의 Vision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남편이 늘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일부나마 울타리 역할을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강석진 회장님 이하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울타리 위성클럽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